

우아한 '태권 예술' 세계를 매혹시키다

태권체조 세계대회 3연패한 조선대 태권도 시범단



스포츠 포커스

지난 4일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열린 수원체육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7 청·장·중 여성부 태권체조 부문 우승에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이름이 불려졌다. 지난2005년, 2006년 우승에 이어 대회 3연패의 위업을 이룬 순간이었다.

관객석에서 숨 죽이던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환호가 쏟아졌다. 시범단과 학생들은 서로 포옹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을 만끽했으며 한켠에 서 있던 윤오남(47)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과장은 조용히 치밀어 오르는 기쁨의 눈물을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싫어 체육관 천장을 응시했다.

주마등처럼 그동안의 땀과 노력의 시간들이 스쳐지나갔다.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2004년 신설됐다. 그리고 곧바로 2005년 태권도학과 시범단이 운영됐다.



2004년 태권도 학과 신설 윤오남 교수·임영란씨 열정 순수 아마추어 태권인 모아 세계 향한 비상의 날갯짓

윤 교수는 선수들을 제외한 태권도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 다니며 태권도를 익힌 학과생들에게 성취의식과 동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범단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태권도 학과 학생이고 어엿한 태권인이면서 엘리트선수들과 구별되는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아리 형식으로 20명이 모여 태권체조를 익히기 시작했다. 순수 아마추어 태권인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윤교수의 뜨거운 열정과 안무를 담당한 조선대학교 무용과 출신 임영란(42) 선생의 노력이 어우러져 시범단은 발족 1년도 안돼 2005년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체조 부문에서 우승이라는 기쁨을 토했다.

이대회에서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은 태권체조에 대한 그동안의 고집관념을 승부라 깨 버렸다. '우리의 것'이라는 주제로 전통태권도에 전통춤인 '한량무'를 가미해 태권도가 우리 대한민족의 것을 태권체조로 표현,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찬사를 이끌어 냈다.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은 태권체조에 '하얀색 복채' 소품을 처음 사용했고 의상도 천편일률적인



세계태권도대회 태권체조 부문에서 3연패를 이룬 조선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훈련후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맨오른쪽이 지도교수 윤오남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과장, 맨왼쪽은 안무담당 임영란씨.

도복에서 한복식 조끼를 덧입어 변화를 꾀했다. 무엇보다 단순한 차고,찌르고 하는 태권동작에 에어로빅을 적당히 섞은 태권체조에 의미와 주제를 불어넣어 새롭게 재구성한 연출력이 돋보였다.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우승 원동력인 임선생은 "대회가 세계태권도한마당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도록 전통미를 강조했다"며 "기존의 태권체조에서 내용이 있는 예술성이 가미된 태권체조로 승화시킨 것이 태권체조를 한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당시 대회를 회상했다.

이 2006년에는 '탈무'라는 주제로 세상속에서 나의 모습과 탈속해 감추어진 본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음악도 퓨전 음악을 사용했듯이 탈 또한 태권도에 맞게 기존탈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역시 심사위원들은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시현정신과 테마가 있는 태권체조에 2연패라는 영예를 안겼다.

그리고 2007년, 사실 올해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2연패를 이기기 때문에 견제도 심했고, 심사위원들도 3연패를 주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은 지난 7월부터 방과 후 밤 11시까지 5시간의 맹연습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 땀을 흘렸다. 윤교수는 주말에 아이들을 아예 학교 체육관으로 데려와 놀도록 하며 시범단과 호흡을 같이 했고, 임선생은 새롭게 참신한 안무와 주제로 대회 3연패를 준비했다.

올 주제는 '비상'. 푸른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여 응원과 위엄, 그리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했다. 마치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생들이 꿈과 열정

을 품고 독수리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하다.

윤교수는 "조선대 태권도학과가 짧은 역사지만 학생들이 인턴십을 이용해 꿈을 크게 갖고 세계로 뻗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인턴십을 마치게 되면 17학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재 사정을 배우고 언어연수도 할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인턴십을 통해 학력신장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조만간 세계속의 조선대 태권도학과로 발돋움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독창성과 도전정신으로 진 일보한 태권체조를 창조한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태권 체조란?

태권체조는 품새 및 5가지 필수 발차기(거품옆차기, 앞돌려차기, 뒤차기, 온몸돌려 후려차기)를 포함해 태권도동작을 음악 또는 기타 악기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한 체조형 연속동작으로 동작의 정확도와 예술성에 따라 순위 결정을 한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p>개업·성업 안내</p> <p>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 본사 판매국(062)220-0551</p>	<p>피자지오 장성군 을영리 치크르스트 불고기피자, 피자 돈가스, 파스타, 훈제치킨 ☎(061)393-2975</p>	<p>옛날손짜장 대인동 롯데마트후문골목 손짜장, 김밥장, 삼선짜장 탕수육, 사촌탕수육 신축배달 ☎(062)232-0036</p>	<p>진수사 금동 구서정사거리에서 병무청쪽100M 회, 초밥 전문점 대표 진남식 ☎(062)223-1104</p>	<p>거금근로자대기소 두암동 마리보@입구 사거리 문화@앞 목수,미장,스미,철근 철거전문 건설 각본이근로자 수시모집,초보자환영 ☎(062)287-1104</p>	<p>효창공인증거사 광산구 쌍암동 제일은행 옆 2층 첨단,상업지역 토지,상가,모텔,그레벨트,아파트 전문공계 각종부동산상설 상담전문 ☎(062)972-9946</p>	<p>춘천연육침대 누문동 교보빌딩 옆 한국의 지방 춘천의보서,춘천연육,침대 춘천 연육 목욕침대 ☎(062)522-0885</p>	
<p>영암스포츠타사지 영암군 을서면 힐스장1층 목,하디,디스크 초·중·고 최후추진중 스포츠맛사지 ☎(061)471-9629</p>	<p>양자강 장성군 장성읍 최선의 서비스로 신축배달 면류, 밥류, 안주류 ☎(061)392-9774</p>	<p>거금직업소개소 두암동 마리보@입구사거리 상생지파및연식당부, 친모, 밥집모, 설거지 실장, 홀씨님 수시모집 ☎(062)267-1104</p>	<p>람바다회무침전문점 금호동 서구문화센터건너 회무침 전문점 단체 손님환영 대표 임금순 ☎(062)654-8085</p>	<p>김덕수국어·논술학원 북구 삼각동 보람산부인과건너편 국어·논술 전문학원 원장 김덕수 ☎(062)576-9570</p>	<p>오리명가 토기장이 두암동 LPG가스충전소뒤 오리불고기,서비스,훈제,한방백숙 탕수육,소금구이,주물럭 전문 ☎(062)711-5252</p>	<p>은하사진관 서동 대침주유소와 새미래빌딩 앞 급사진 3분완성 대표 안순조 ☎(062)652-8560</p>	<p>일송정 누문동 교보빌딩 옆 한식전문점 대표 김원균 ☎(062)525-9977</p>
<p>신월착한고기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52-33번지 대표 김창준 ☎(061)472-9039</p>	<p>왕자관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삼서면사무소앞면 각종계모임,단체예약손님환영 전화주문시 신축배달 대표 강해경 ☎(061)393-0310</p>	<p>송화식당 금호동 민호초교로교과건너 거북다리(송) 각종해산물만미 점심특선 추가탕,생태탕,생굴술밥 ☎(062)655-5070</p>	<p>명품수산물 송하동 금호상가 수산물 전문점 대표 이상모 ☎(062)675-1688</p>	<p>동의보감 북구 양죽동 양죽1구역양죽1상생은행옆 보양탕전문점 (모든 메뉴는 포장됩니다) 대표 이윤미 ☎(062)572-7372</p>	<p>천천7080라이브콘서트 송하동 광주대1부센터레일박스앞 주 간: 경양식 야 간: 라이브콘서트 ☎(062)676-7090</p>	<p>까치대리운전 남구 주유소앞 5회 이용시 로도 증명 ☎(062)1577-5899</p>	<p>미소연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와 남양@건너 일식 전문점 대표 노병환 ☎(062)372-4455</p>
<p>가마솥찜탕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249-2번지 토종 붓어찜,붕어찜 전문점 대표 류근홍 ☎(061)473-5050</p>	<p>대성떡방앗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삼서면사무소앞면 각종떡 주문판매 전화주문시 신축배달 대표 강해경 ☎(061)394-2058</p>	<p>금호실내골프연습장 금호동 민호초교옆 미미빌딩601호 실내 골프 연습장 ☎(062)376-6886</p>	<p>진가네 중흥동 전대후문에서 광주은행뒤 생선잡탕,삼겹살,김치찌개,등정찌개 한식전문 대표 진미숙 ☎(062)524-5454</p>	<p>은주자동차검사장 옥산동 시가지에서 입국빌딩 앞빙빙정검 환경정밀검사, 정기검사 전자량 검사대행 ☎(062)952-2114</p>	<p>e-쁘지오(문후점) 문후동 라인1차상가 국민은행2층 여성성형 스킨디자이너전문점 원장 양항숙 ☎(062)264-8822</p>	<p>황서방추어탕 누문동 교보빌딩뒤 자연산 추어탕,낙지볶음,붕어찜 메기탕,추어튀김,김치전골 전문 ☎(062)514-2535</p>	<p>황제면가 일곡점 일곡동 일곡지구 일곡중학교옆 명·온·소·바·마·문·모·비·모·일·곡·짜·장 달·미·요·미·부·초·반 직·접·물·만·년·단·계·약·손·님·환·영 ☎(062)575-8222</p>